

메시지 6
 주님의 회복의 현재의 상황과
 현재의 필요에 관해 분명한 조망을 가짐

성경: 딤편 1:3-4, 행 1:14, 엡 4:11-14, 딤편 3:10, 롬 16:17, 행 26:19

- I.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의 유일한 사역 이외의 다른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분열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신약의 사역, 곧 새 언약의 사역은 우주적으로 유일하게 하나이다—딤편 1:3-4, 행 1:17, 25, 고후 3:6, 8-9, 4:1, 딤편 1:12.
- A. 사도들은 하나님의 경륜의 유일한 가르침 이외의 가르침은 어느 것이든 다른 가르침으로 여겼다—딤편 1:3-4.
 - B. 신약의 사역은 사도들의 가르침, 곧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가르침에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여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기 위한 것이다—고후 3:6, 엡 3:9-10, 4:11-13.
 - C. 신약 사역은 유일하게 하나이고 또한 단체적이지만, 이 사역은 그리스도의 몸의 봉사이고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지체는 각자 개인의 사역이 있다—딤편 1:12, 딤편 4:5.
 - D. 사역자들은 많지만, 이 모든 사역자는 신약 사역이라는 단체적인 한 사역만을 가진다—고전 16:10, 고후 4:1.
 - E. 다르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건축물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경륜 전체를 폐한다. 오직 한 종류의 사역만이 건축하고 결코 분열시키지 않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유일한 사역이다—딤편 6:3-4.
 - F. 의견을 달리하는 이들의 다른 가르침들은 하나님의 대적에게 일종의 바람으로 이용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경륜에서 빛나가고 벗어나게 한다. 이러한 다른 가르침들이 교회의 하락과 타락과 쇠퇴의 주된 근원이다—엡 4:14, 딤편 1:3-7, 6:3-5, 20-21.
 - G. 모든 분열의 근본 요인, 그 뿌리는 다른 사역들이다. 모든 어려움과 분열과 혼란은 다른 사역들을 묵인하는 이 한 가지 원인에서 기인했다—고후 11:2-3.
 - 1. “우리가 깨어 있지 않고 부주의하다면, 원수는 살며시 기어들어와 이런저런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다른 사역들을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주님의 회복은 끝날 것이다.”—장로 훈련, 제1권, 신약의 사역, 17쪽.
 - 2. “만약 우리가 다른 모든 사역을 제하고 신약의 유일한 사역만 남겨 둔다면, 모든 교파와 다양한 단체와 모든 분열은 사라질 것이다. ... 만약 우리가 이 유일한 사역 이외에 새롭고 다른 무언가를 수행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회복에 관하여는 끝난 것이다. 사실상 주님의 회복은 우리를 유일한 신약 사역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장로 훈련, 제1권, 신약의 사역, 74쪽)
 - H. 이 사역에 의해 양육을 받은 성도들은 이 사역에 대한 입맛을 갖고 있으며, 이 입맛이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통제 요인이다. 이 사역에 의해 양육을 받은 이들은 그것과 다른 맛을 거절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회복의 맛과 반대되는 것을 말한다면 우리가 말한 것은 거절당할 것이고 우리 자신은 손실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벧전 2:3.
- II. 우리 가운데 있는 배역의 문제는 몇 가지 분열적인 요인에서 기인한 것이다.
- A. 주님의 회복의 유일한 일 안에서 별도의 일을 하려는 의도는 분열적인 요인이다. 주님의 회복 안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기 위한 유일한 한 일이 있다—참조 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0, 74-76쪽, 장로 훈련, 제11권, 장로직분과 하나님의 정하신 길(3), 12-13장)

- B. 분리된 지역을 가지려는 경향은 분열적인 요인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정해 주신 분량 안에서 일해야 하지만(고후 10:13-16),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주신 분량을 자신의 특별한 지역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 C. 자신의 일을 다른 사람의 일과 연합시키려고 하지 않는 것은 분열적인 요인이다. 주님을 위한 베드로의 일과 바울의 일은 모두 어떤 분리나 구별 없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위하였다—고전 1:12, 행 15:2, 4, 21, 17-20상.
- D. 주님의 일에서 결출한 인물이 되기를 은밀히 기대하는 것은 분열적인 요인이다—요삼 9, 참조 행 15:39.
- E. 주님의 회복 안에서 한마음 한뜻을 지키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은 분열적인 요인이다—행 1:14, 2:42, 46, 엡 4:3.
- F. 오늘날 배역적이고 분열적이며 당파적인 사람들의 반대하는 비난들은 이전에 우리 가운데 있었던 소요에서 사탄(계 12:10-11)이 했던 비난들과 동일하다—참조 장로 훈련, 제10권, 장로직분과 하나님의 정하신 길(2), 111-147쪽,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에 따른 교회 생활의 실행, 2-3장)

III. 현재의 배역적이고 분열적인 모든 상황을 처리하는 길은 그리스도의 몸이자 하나님의 집과 왕국인 교회에 관한 진리에 모든 주의를 기울이고(엡 4:15-16, 딤후 3:15, 롬 14:17),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리를 지키고(요이 1-2, 요삼 3-4), 어떤 종류의 분열도 거절하고(고전 1:10), 온갖 종류의 가르침의 바람과 영적인 사망의 확산에 맞서며(엡 4:14, 딤후 2:16-17), 전염성이 있는 사람들을 격리하여 그들에게서 분별되는 것이다(딤후 3:10, 롬 16:17).

- A. 오늘날의 상황에서 중요한 문제는 옳고 그름에 있지 않고 우리가 분열적이나 분열적이지 않느냐에 있다—고전 1:10-13, 참조 창 2:9.
- B. 독립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지 않고(고후 13:8, 10)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한다. 우리는 믿는 이들을 받고 분열을 일으키는 이들에게서 떠남으로써(롬 14:1-3, 16:17) 몸의 생활을 실행해야 한다.
- C. 진리를 지키려면 우리는 나실인의 서원으로 개인적인 애정을 극복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인간관계를 제쳐 두고 몸의 진리를 실행해야 한다—민 6:1-9, 참조 레 10:6-7, 출 32:25-29, 신 33:8-9.
- D. 우리는 예방접종자들, 곧 생명으로 충만하고 진리로 구성된 이들이 되어, 교회의 하락에 대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예방접종을 해 주어야 한다—딤후 2:1-15, 요일 5:16상, 딤후 1:9.
- E. 우리는 하나님의 지방 교회들의 유일한 터 위에 서서 대가를 지불하여,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와 실재를 위해 섞임의 실행과 그 내재적인 의미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전 1:1-2, 9-13, 12:24, 엡 4:3-6.

IV.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긍휼을 받아,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에 도달하고,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를 예비하기 위해 활력 그룹들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사람들을 목양함으로써, 주님의 현재의 회복 안에서 새로운 부흥을 가져와 시대를 전환하는 그분의 이기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

- A. 우리는 시대의 사역을 통해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에 도달함으로써 새로운 부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서 수행하시는 특별한 회복과 일이 그 시대의 사역이다. 각 시대에는 그 시대의 이상이 있고, 우리는 그 시대의 이상에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잠 29:18, 행 26:19, 엡 1:17, 3:9.
 - 1.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리의 이상은 반드시 창세기에 있는 아담의 첫 이상부터 요한

계시록에 있는 요한의 최종적인 이상에까지 미치는 것이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한마음 한뜻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오직 하나의 이상, 최신의 이상, 모든 것을 이어받은 이상,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이상이 있기 때문이다.

2.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게 하고, 하나님 자신을 사람과 하나 되게 하고 사람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함으로써 그분의 표현이 확대되고 확장되어, 하나님의 신성한 모든 속성이 사람의 미덕들 안에서 표현되게 하는 것이다—딤후 1:3-4.
 3. “나는 성도들이 ... 이 계시를 보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부흥, 역사상 기록된 적이 없는 부흥을 주시도록 기도하기를 바란다.”—역대상하 라이프 스타디, 17쪽.
 4. “우리는 하나님의 현재의 계시의 고봉을 배우고 이러한 것들을 말하기를 배워야 한다. ...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신성한 계시의 고봉과 하나님의 최신의 이상을 가지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완결할 신성한 계시의 고봉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이러한 높은 위임을 받아들이라고 격려하고 싶다”—삼일 하나님의 계시와 그분의 움직이심, 124-125쪽.
- B.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인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실행한다면, 단체적인 하나의 본, 곧 하나님의 경륜 안에 사는 본이 건축될 것이다. 이러한 본은 교회사 가운데 가장 큰 부흥이 되어 주님을 다시 모셔올 것이다.
1.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는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거듭나고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된 세 부분으로 된 하나님-사람들과 삼일 하나님이 영원한 연결 안에서 단체적이고 연합된 생활을 하는 것이다—참조 레 2:4-5.
 2. “만일 우리 가운데 전부는 아니지만 적어도 일부만이라도 이러한 생활을 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것은 지방 교회들 가운데 있는 회복의 최고봉으로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시온 산과 같은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인 이러한 연합된 생활은 궁극적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어 영원토록 하나님의 증가와 표현이 될 것이다.”—쉬임에 관한 실제적인 요점들, 68쪽.
 3. “우리는 모두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하기 원한다고 선포해야 한다. 결국 하나님-사람들은 승리자들, 이기는 이들, 예루살렘 안의 시온이 될 것이다. 이것은 역사상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부흥을 가져올 것이고, 이것이 이 시대를 마감할 것이다.”—역대상하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4, 32쪽.
- C. 우리는 하늘에서의 사역을 수행하시는 그리스도와 협력하여 활력 그룹들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사람들을 목양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해야 한다—벧전 5:4, 2:25, 행 20:28.
1. “나는 우리가 목양에 대한 이러한 부담을 받아들임으로 우리 가운데 진정한 부흥이 있기를 바란다. 모든 교회가 이러한 가르침을 받아 그리스도의 놀라운 목양에 참여한다면 회복 안에 큰 부흥이 있을 것이다.”—활력그룹, 51쪽.
 2. “나는 우리 모두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란다. ‘주여, 저는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목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먹이고, 사람들을 목양하며, 사람들을 함께 모이게 하겠습니다.’”—요한복음 결정-연구, 182쪽.
 3. “만일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실행한다면, 주님의 회복 안에 참된 부흥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신성 안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또한 그분의 인성 안에서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목양하고 찾는 영을 갖고 목양해야 한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신성하고 비밀한 모든 가르침의 하늘에 속한 이상을 가져야 한다. 목양하고 가르치는 것은 활력 그룹의 의무이며,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본적인 길이다.”—활력그룹, 71쪽.